

20241215(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

본문 빌 4:4-7

제목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908 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로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독과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듣고 있던 해밀턴 박사는 “당신은 매일의 생활로부터 한 번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수척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니까?”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라는 광대의 연기를 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수척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웃음을 잃은 광대 그리말디는 어디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 우리도 그리말디와 같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정신나간 듯 히죽히죽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너를 압도하여도 그 상황에 주눅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울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기뻐하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압도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실은 실현하기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개인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큰 힘이 못 되었던 같습니다.
인생이 비참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정도는 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똑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 보다는 자신의 훌륭함과 뭔가 있는 듯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와 똑 같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나 항상 기뻐하는 길을 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내게 닥친 아프고 비참한 상황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두 단어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신약성경에 포함된 자신의 13개의 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핵심적인 신앙이요, 신학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졌으나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의 문이시고, 진정한 사랑의 목자이시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길과 진리이시며, 진정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포도 나무시며, 최후의 승리를 주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도우시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도우시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 안에 네가 있고, 이러한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가장 기쁜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도우시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안에 안겨 있으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에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의 사랑과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와 달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엄마 품에 꼭 안긴 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을 젖을 먹으나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12:2-3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 노래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우물로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우시고 모른 채 하냐고 원망하였지만 실은 하나님은 항상 넘쳐 흐르는 샘 솟는 샘으로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물을 길어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생명의 물을 길어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척박합니다. 건강도 예전과 달리 자신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무엇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아픔과 상처가 깊은 우울속으로 몰아갑니다.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언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 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안에서 기쁨의 물, 생명의 물을 길어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며 주저 앉아있지 말고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고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것까지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어떤 식으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즉, 우리의 머리, 지혜, 경험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겪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예 함께 하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꼭 선교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거룩한 고통, 신앙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눈물만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련된 아픔과 눈물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 가는 등불처럼 초라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재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직장인이 쉬지 않고 매일 같이 일 하듯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새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나의 연약함, 시련,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전 5:17**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40일 새벽기도회를 끝내고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쉬라고 하고 제 아내도 더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했는 딱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 한 분도 못 나오셨습니다. 이사 문제로 힘드셔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찬송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음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 그 기도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 아내를 살리고, 성도님들을 살리고, 저를 살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길이 뚫리는 기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도우시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구원의 우물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리는 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때 우리는 비로서 기쁨을 회복할 것이며,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사탄의 계락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환경과 세상을 이기며 항상 기뻐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할~~

(음악과 함께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과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도우시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우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 기도의 길을 가게 하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갈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